

‘2002 한국전자책 산업전’ 열려 · 외

전자책의 오늘을 점검하고 전자책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2002 한국전자책 산업전’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중구 무교동 파이낸스센터 7층에서 열린다. 한국전자출판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연구소, 문화일보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출판금고, 국립중앙도서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후원하는 이번 산업전은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자책, 희망은 있다’ ‘편집자를 위한 e-Book 실무강좌’ 등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사업설명회 및 투자설명회를 연다.

이번 산업전은 전자책 단말기 전시관, 전자책 디지털 콘텐츠 전시관, 전자책 소프트웨어 전시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라이브러리관, 전자책 제작 체험관, 근거리 통신망과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책 등을 설명·시연하는 모바일관, 멀티미디어관 등 전자책의 활용범위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관도 준비돼 있다. 입장은 무료. | 722-6488

한국출판인회의, ‘사랑의 책 보내기 축제’ 열어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연호)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와 공동으로 ‘사랑의 책 보내기 축제’를 시작한다. 군복무 중인 친구, 연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계 책의 날’ 책 선물을 대신해주는 이 행사는 4월 5일부터 14일까지 참여 서점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참가신청을 받고, 그 가운데 1천명을 선정해 1인당 약 두권의 양서를 ‘세계 책의 날’ 신청자들이 요청한 병영으로 우송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출판인회의 ‘세계 책의 날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오전 11시 30분 인사동에서 세계 책의 날 독서진흥운동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매년 4월 23일이 책 읽기를 장려하는 축제일로 자리잡도록 사회 각계의 단체와 언론매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 3444-0623 | www.kopus.org

‘세계 책의 날’ 기념 포스터 및 엽서 제작·배포해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공동대표 도정일)은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기념 포스터 및 엽서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포스터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도서출판 일진사의 후원으로 제작됐으며, 화가 고영훈의 작품 <나팔·꽃(샘)>을 바탕으로 조의환씨가 디자인했다. 기념 엽서는 배우 안성기씨를 모델로 정병규씨가 디자인했으며, 전국 주요 서점에 배포돼 세계 책의 날을 전후해 서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 546-8797 | www.bookreader.or.kr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학교’ 강좌 개설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신기남)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공동으로 ‘자녀독서지도와 문화교양강좌’를 주제로 한 도서관문화학교 2002년도 제1기 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독서의 의미, 독서지도의 실제, 자녀교육과 문화교양강좌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해 총 18강좌로 구성했으며 4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열린다. 수강대상자는 자격 제한이 없으며, 수강료는 교재대를 포함해 3만원이다. | 535-4868

한국문인협회, ‘아동문학의 날’ 제정·선포해

한국문인협회 아동문학분과회(회장 박종현)는 5월 1일을 ‘아동문학의 날’로 제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연다고 발표했다. 제1회 ‘아동문학의 날’ 기념행사는 한국아동문학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한국아동문학연구회, 한국아동문예작가회 공동 주최로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동송동 흥사단 강단에서 개최되며, 아동문학의 날 선언문 낭독, 표어 제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743-2511

윤형두씨, 21세기 훌륭한 지도자상 수상해

범우사 윤형두 대표가 미국 바론스 후즈 후 출판사가 선정·수여하는 21세기 훌륭한 지도자상 및 위대한 아시아 500인에 선정됐다. 윤대표는 1966년 범우사를 창립해 35년간 3천여종의 책을 출판했고, 《출판물 유통론》《책의 길 나의 길》 등 10여권의 책을 펴냈으며, 지난해에는 출판윤리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717-2121

간행물윤리위원회, ‘4월의 읽을 만한 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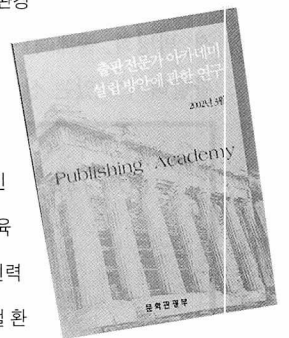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윤양중)는 ‘2002년 4월의 읽을 만한 책’ 10종을 선정·발표했다. 선정 도서는 《벌치》(김주영, 문이당),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유인선, 이산), 《철학 속으로 들어가기》(장 폴 주아리, 차건희, 민음사),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청년시절》(이정식, 권기봉, 동아일보사), 《금융의 세계화》(프랑수아 세네, 서익진, 한울), 《미국식 사회 모델》(취스탱 바이스, 김종명, 동문선), 《인간 복제 무엇이 문제인가》(제인스 왓슨 외, 류지한 외, 울력), 《이야기가 있는 미술관》(김승현, 켈처클럽), 《유혹하

문화관광부,

《출판전문가아카데미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퍼내

문화관광부(장관 남궁진)는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소장 한기호)에 의뢰해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펴냈다. 이번 연구는 고질적인 인력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시스템 부재 등 출판계 인력 수급 문제에 주목해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출판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이 책에서 연구자들은 국내외 출판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현재 출판단체나 사설기관이 개설하고 있는 출판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몇가지로 지적하면서 이 기관들이 항구적인 출판전문가 양성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분야마다 전문가 과정과 입문 과정을 분리할 것’ ‘필요에 따라 주별 심화 토론 과정을 개설할 것’ ‘외국 출판전문가 유치 및 세계출판계와의 지속적 교류’ 등을 제시했다.



는 글쓰기》(스티븐 킹, 김진준, 김영사), 《불행한 사내에게 찾아온 행운》(슈테판 슬루페츠키, 조원규, 문학동네) 등이다. | 669-0772 | www.kpec.or.kr

《월인천강지곡》, 외국어로 최초 번역 · 출판돼

《월인천강지곡》이 외국어로는 처음으로 독역돼 소학사에서 출판된다. 이 책은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제)의 해외 한국학 연구지원을 받아 출판되며, 독일 함부르크대 베르너 샤테 교수와 안정희 교수가 공동 번역한다. | 725-5420

판매유통 전문기업 중앙일보출판유통 출범해

중앙일보출판유통(대표 문명철, 이하 출판유통)이 지난 1월 2일자로 출범하고 판매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M&B 자회사인 출판유통은 현재 전국 102개 월간지 총판, 36개 단행본 전문 도매상 및 대여점, 복합매장을 관리하는 51개 만화 전문도매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잡지, 단행본, 게임, 만화 등 출판, 엔터테인먼트 판매유통을 전담한다.

판매본부 홍순택 부장은 “출판물 유통 35년 경력을 살려 배본에서 수급까지 ‘ONE-WAY SERVICE’를 제공한다. 전담총판체제를 도입, 지역별로 권역을 묶어 대형화하고, 물류기능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0-6203 | www.jboomarket.co.kr

교보문고, ‘소년소녀 가장돕기 도서바자회’ 열어

교보문고(대표 김년태)는 4월 8일부터 6월 31일까

지 3개월간 ‘소년소녀 가장 돕기 도서바자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종로구청, 소년한국일보,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총 5개 단체가 후원하

며, 도서판매금액의 5%를 사랑의 공동복지 모금회에 기탁한다. | 397-3432 | www.kyobobook.co.kr

지하철 책열차, ‘2002 메트로 북메세’ 출발해

달리는 지하철에서 책을 만나는 즐거움을 선사할 지하철 책열차 ‘2002 메트로 북메세’가 지난 4월 4일 운행을 시작했다. 오는 8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4호선 당고개에서 사당역을 운행하는 책열차는 10량으로 편성돼 하루에 12번 시민들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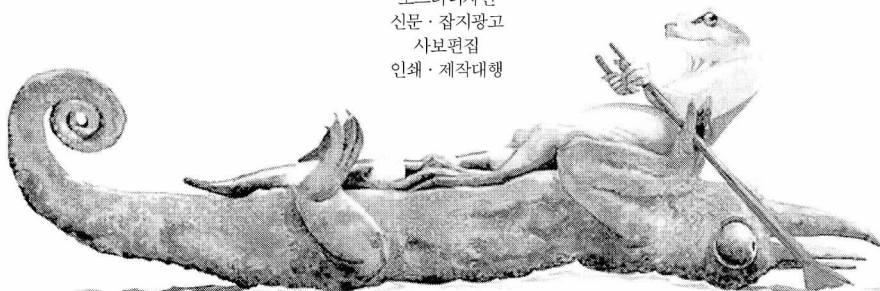
책열차 외부는 10량 전체에 각종 단행본 표지이미지를 디자인했으며, 차량 앞부분은 책 표지, 한글 달소리, 홀소리, 각국의 북페어 엠블럼 등으로 꾸몄다. 내부는 10개의 주제판으로 꾸며졌는데, 한쪽 면은 테마전시를, 다른쪽 면은 참여 출판사들의 광고를 실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뽑아볼 수 있도록 간이 서가도 마련했다. 간이 서가는 차량마다 22개씩 총 220개를 설치했고, 차량 평균 330권씩 총 3,300권의 도서를 비치했다.

10량의 차량은 각기 다른 주제를 담고 책의 소중한 가치와 독서의 아름다움을 새롭고 독특한 방식으로 홍보한다. 책열차 첫량 ‘우리 책의 역사’는 책의 어머니인 문자를 시작으로 우리 책이 걸어온 발자취를 담았다. 《팔만대장경》《무구정광 다라니경》 등 목판본을 비롯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을 만날 수 있고, 《훈민정음》 창제 후 한글꼴의 변천사도 살펴볼 수 있다. 2량 ‘다시 책이다’는 국내외 소설과 수필을 엄선해



알려주고, 3량은 현대문학 50선을 시·소설·수필로 나눠 책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4량 ‘책으로 가는 평양’에선 북한에서 발간된 각종 도서를 사진으로 만난다. 나무와 곤충 사진이 책과 어우러진 5량 ‘꿈나무들의 책세상’과 6량 ‘키즈, 키즈, 키즈야!’를 지나면 ‘이 책 만은 꼭!’ 등 선생님들이 추천한 1318세대들을 위한 책들이 준비돼 있다. ‘내 인생을 바꾸어준 한 권의 책’을 소개한 8량도 인상적이다. 우리 사회 명사들이 추천하는 책들이 고졸한 책의 향기가 느껴지는 서가사진과 자연스레 어우러졌다. 9량 ‘책으로 읽는 과학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 지렛대인 과학을 만나다보면, 어느새 책과 월드컵을 주제로 꾸민 마지막 량 ‘책나라 만화나라’다. 책열차가 ‘책읽는 사회’를 만드는 견인차가 되길 기대한다. — 박옥순 기자

표지디자인
단행본 편집
브로셔 · 팜플렛
포스터디자인
신문 · 잡지광고
사보편집
인쇄 · 제작대행



창조적 변신이란?

TOTO DESIGN 토토디자인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빌딩 1308호 | 전화 02-706-3417 | 팩스 02-706-7386 | E-mail: totoland@kornet.net